

부담줄이기 기능의 종결어미 ‘-는데’와 ‘-거든’에 얹히는 문말 억양 연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박 지 연

Abstract

Park Jiyeon. 2016. 9. 30. **A study on the intonation of ending word ‘-neunde’ and ‘-geodeun’ attached to sentence final ending functioning as burden-reduction.** *Bilingual Research* 64, 1-20. This study examined whether Korean language learners realized appropriate intonation for specific final endings functioning as burden-reduction in speaking situ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final ending intonation was conducted when final endings ‘-neunde’ and ‘-geodeun’ were utilized in order to reduce the sense of burden in the circumstances of refusal, targeting 25 Korean native speakers. Moreover, it also explored the differences in ending words intonations of 25 Chinese native speakers in the identical circumstances.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When Korean speakers spoke under the objectives of reducing the sense of burden for their listeners, they made specific transformations in sentence ending intonation which realized the intonation of ‘L/LHL’ in a decreasing tone. Also, the elongation phenomenon of ‘-yo’ in sentence endings was identifie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majority of Chinese language learners spoke their final ending intonation in an increasing (H) tone. Such phenomenon was noticeable in the case of ‘-geodeun’ in particular, and the elongation of ‘-yo’ of the sentence endings was less frequent. In these cases, miscomprehension or conflicts can be caused as the sense of burden of listeners does not decrease but increase when learners refuse something in the conversation with Korean language speakers. This study confirmed that even advanced learners had problems in speaking in proper intonation for the objective of speech. Therefore, the intonation education suitable for the goals and intentions of speech is required. (Ewha Womans University)

【Key words】 intonation(부담줄이기), reduce the sense of burden(문말 억양), ‘-neunde’ and ‘-geodeun’(‘-는데’, ‘-거든’), final ending(한국어 억양), final endings functioning as burden-reduction(부담줄이기 기능 어미)

1. 서론

구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 화자는 자신의 의도나 태도에 따라 억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청자는 이것에 대해 바르게 파악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과 오해 없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억양을 통해 전해지는 화자의 감정이나 의도, 태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법적 오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어 화자들은 문법의 문제보다는 화용적 오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성격의 문제로도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해영, 2009). Gumperz & Levinson(1996)도 목표언어의 모어화자들은 외국인 화자의 잘못된 억양 사용에 대해 오류의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외국인 화자의 의도적으로 그 억양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¹⁾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국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이해되는 일정한 억양 패턴을 익히고 그 억양을 통해 자신의 태도와 감정 등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²⁾

- 1) 화용적 실패란,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생활양식, 사고방식과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해 특정한 목표 언어 상황에서 어떤 언어적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화용적 문제이다(이해영, 2015).
- 2) 화자의 태도에 따라 억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들도 이러한 억양의 패턴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핵억양 즉, 문말 억양의 유형과 화자의 태도는 일대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하나의 억양 유형이 다양한 화용적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각기 다른 다양한 억양 유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화자는 발화에 함축되어 있는 태도나 감정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급 학습자가 유창성을 확보

억양이 특정한 의사소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문말 억양에서 두드러지는데, 다음은 종결어미 ‘-거든’에 얽히는 억양의 변이형이 나타난 예들이다.

- (1) 가: 복사 좀 부탁해요.
나: 지금은 안 되는데요.
가: 왜요?
나: 복사기가 고장났거든요.(L)
- (2) 가: 혜영이 과제 니가 해줬어?
나도 해 줄 거지?
나: 내가 요즘 좀 바쁘거든.(L)

(1)에서 (나)는 (가)의 업무지시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사기의 고장’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기보다는 ‘복사기가 고장난’ 상황에 대해 ‘-거든’을 사용하여 화청자의 공유정보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가)가 스스로 인과성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논리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유를 제시할 때보다 상대방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청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의 ‘-거든’ 역시 (가)의 믿음이나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거든’을 사용하여 거절의 이유만을 알림으로써 청자에게 화자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청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만약 (1)과 (2)의 발화에 실현된 ‘거든(요)(L)’ 대신에 ‘거든(요)(H)’의 억양이 결합된다면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으로써 부담을 오히려 증대시키고 갈등을 야기시

하고, 한국인과 의사소통 장애 없이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억양을 듣고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를 어휘나 어미와 같은 언어 표현에만 의지하여 해석한다면 화용적 실패를 일으켜 의사소통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황선영, 2014).

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담줄이기³⁾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결어미 ‘-거든’ 위에 그 목적에 맞는 억양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⁴⁾ 만약 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고급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담화상황에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정한 한국어 종결어미들에 대해 그에 맞는 적절한 억양을 한국어 학습자들이 잘 실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담줄이기 기능을 하는 종결어미들은 이해영(199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는데, -거든, -는걸, -고, -든지, -네, -구나/군, -을걸, -지’ 등 많이 있지만 본고에서 그 중 ‘-는데’와 ‘-거든’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는데’와 ‘-거든’은 다른 종결어미들에 비해 그 의미 기능이 다양하여 여러 유형의 발화문에서 사용되며, 구어에서 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은경(1999)은 ‘-는데’가 구어체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미라고 했으며, 안의정(2007)은 ‘-거든’이 구어 표제어에 있어 구어성 점수가 높은 종결어미라고 하며 한국인의 구어 생활에서 ‘-거든’의 문장 종결어미로서의 기능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본고는 이 종결어미들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한

- 3) 부담줄이기란, 화자가 청자와의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화용적 기능을 말한다. 즉, 화자의 발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거부감이나 불편함, 불쾌감, 당황스러움 등의 부담을 줄이고, 갈등이나 마찰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Leech(1983)와 Brown and Levinson(1978) 등은 이와 같은 기능을 공손(politeness)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해영(1996)은 청자를 배려하는 표현을 단순히 공손으로 설명하게 되면 청자가 상위자가 아닌 경우에 단지 부담을 줄이려는 화자의 동기에 의해 발화되는 표현들에 대한 설명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본고 역시 이에 동의하는 바 ‘부담줄이기’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 4) 조민하(2014)에서는 연령에 따른 억양의 공손전략 원리를 밝히기 위하여 10대, 20대, 30대의 여성 자유발화를 녹음하여 비교·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연령별 공손전략의 차이는 언어적 요소인 어미 형태보다 비언어적 요소인 억양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국인 모어 화자들의 문말 억양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화하는 문말 억양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억양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선행연구

이해영(1996)은 종결어미 ‘-거든’이 부담줄이기의 장치로 기능을 하며 그 요인은 ‘-거든’이 갖고 있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화자는 ‘-거든’을 사용하여 상황을 공유정보화시키는데, 이것은 결국 화자의 속뜻인 주장이나 요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든’의 사용은 화자의 발화에 다소간의 당위성을 부여해 주기도 하며, 아울러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대한 일종의 변명거리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거든’을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입장 즉 ‘-거든’이 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가진다는 관점은 정연희(2001)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채영희(1998)에서도 ‘-거든’의 공손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종철(2002)에서는 종결어미 ‘-거든’의 기능을 ‘정보 제공’, ‘부담 줄이기’, ‘청자 반응 유발 기능’ 세 가지로 요약하고, 이 기능들이 ‘-거든’의 의미 특성[약한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한편, 종결어미 ‘-는데’ 역시 다양한 화용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해영(1996)은 거절이나 반대 의사 표시 등을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발화가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종결어미로 ‘-는데’가 사용되면 ‘-다’, ‘-어’가 사용되었을 때보다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상황설명의 의미를 갖는 ‘-는데’가 부담줄이기의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용석(1981)과 이창덕(1979)에서도 ‘-는데’가 실재하는 사실(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간의 담화 공간이 일치하게 되어, 대면적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데’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구어 담화에서 화자는 종결어미 ‘-거든’과 ‘-는데’를 사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화용적 효과를 얻고 있는데, 조민하(2014b)는 공손전략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율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실시간성과 상호작용성을 갖는 구어의 특성상 주로 간결한 구조의 언어 형식이 사용되며, 언어적으로 생략된 문법적, 화용론적 기능은 억양과 같은 운율 요소에 의해 보완되기 때문이다. 특히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공손전략을 실현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운율 전략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민하(2014b)는 언어적 요소의 간접성을 보완하는 억양의 공손전략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한국인 여성들의 자유발화를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는데’의 경우 장음화된 저조(L)를 실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요청에 대한 거절의 발화수반력을 약화시켜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관찰되었다. 이와는 달리 고조(H)는 화용적으로 단정성과 관련됨으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게 하고 선택의 여지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불손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조민하(2014a)에서는 종결어미 ‘-거든’의 사용이 구어체의 특성이므로 구어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유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운율적 측면의 연구를 했다. 그 결과, ‘L’이나 ‘LHL’의 문말 억양을 통해 간접적이고 유연한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도록 하는 공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잡성조를 활용하여 공손성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화용적 기능은 운율적 특성인 억양과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조민하(2011b)은 억양의 기본 기능과 확대 기능을 구분하고 담화 맥락에서 확대되어 나타난 화용적 기능을 정리하였는데 ‘-는데’와 ‘-거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발화 말 연결어미의 경계 성조와 의미 기능

문장유형		발화 종결										발화 연결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경계성조		M	L	LHL	L	LH	H	HL	H	HL	LH	H	H
기본기능		미정	진술	단언	암시	간접 반응	직접 반응	감탄	직접 반응	감탄	간접 반응	직접 반응	직접 반응
확대 기능	-는데		배경	강조 주장	요청 명령 거절	의혹 대립	기대 반박		질문 (설명)	감탄			
	-거든		이유 배경	설명 강조	거절		기대 반박						결속

위의 표를 통해, 종결어미 ‘-는데’와 ‘-거든’이 가지고 있는 화용적 의미 기능들이 화자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억양으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종결어미 모두 거절의 화용적 기능을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L%의 억양을 갖게 되며, 뿐만 아니라 조민하(2014a)에 의하면 공손성을 위해 복합성조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 (1) 부담줄이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종결어미 ‘-는데’와 ‘-거든’에 얹히는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억양은 일정한 패턴이 있을까?
- (2) 이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 실현 양상에는 차이가 나타날까?

3. 연구 방법

3.1. 실험 참여자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 25명과 한국인 25명을 대상으로 했다. 학습자 집단은 국내 대학이나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5급 혹은 6급 수업을 듣고 있거나 마친 중국어권 학습자 25명이다. 김중섭 외(2010)은 한국어 교육 과정을 7급으로 개편하여 제안하였는데 5급에는 “억양에 나타난 의미 차이를 파악하여, 발화 상황에 맞게 어조를 바꾸어 말할 수 있다.”라고, 7급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5급 이상의 학습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송윤경 외(2012)에 의하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성조의 측면에서 모어의 간섭이 한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억양 교육을 화행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발화의 자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에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성미(2011a)에서도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평서문의 경계성조(boundary tone)⁵⁾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매우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해 중국어 성조의 간섭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았는데 이처럼 성조 언어를 모국어로 가진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비성조 언어인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인 집단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성의 발화는 남성보다 공손표현이 자주 사용되며(김선희 1991, 이석규·김선희 1992), 억양의 변화폭이 커 남성보다 더 역동적인 억양을 관찰

5) 억양구의 억양이 전달되는 억양의 의미는 대부분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에 얹히는 경계성조에 의해 전달된다고 한다.

할 수 있다(정명숙 2002, 안병섭 2008).

3.2. 실험 도구

발화의 부담이 큰 거절 상황 안에서 부담 줄이기 기능을 하는 종결어미 ‘-는데’와 ‘-거든’을 사용하여 대화들을 구성해 보았다. 미안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거절을 하는 상황으로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절 화행은 여러 화행들 중 부담이 가장 큰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거절은 요청, 제안, 초대, 약속 등에 대해 비선호적으로 대응하는 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요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체면 위협 행위이다. 즉, 거절 화행은 체면 손상을 보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 상대방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화행이라 할 수 있다. 모어화자라도 거절을 기술적으로 실현하지 못했을 경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사소통을 초래해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의식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강효정, 2015). 이에 본고는 이해영(1996)과 윤은미(2004)를 참고하여 ‘-는데’와 ‘-거든’의 종결어미를 활용하여 거절하는 상황과 대화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실험 문장

상황 1	<p>[A와 B의 관계: 친구]</p> <p>◆ 친구A가 과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친구 B는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을 하고 있다.</p> <p>A: 은진이 과제 니가 도와줬어? 나도 도와줄 거지?</p> <p>B: 내가 요즘 좀 바쁘거든.</p>
------	---

10 이중언어학 제64호(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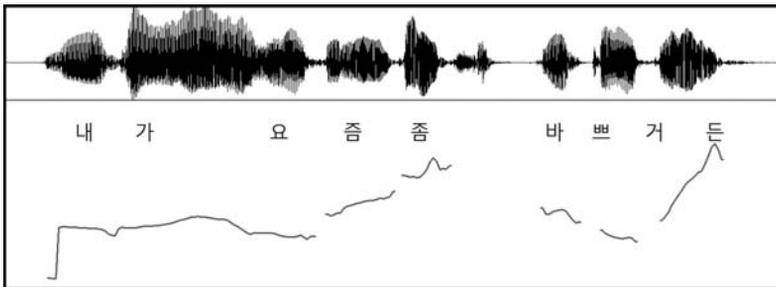
<p>상황 2</p>	<p>[A와 B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 상사 A가 부하 B에게 복사를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부하 B는 지금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공손히 설명하고 있다.</p> <p>A: 미선 씨, 복사 좀 부탁해요. B: 과장님, 지금은 안 되는데요. A: 왜요? B: 복사기가 고장이 났거든요.</p>
<p>상황 3</p>	<p>[A와 B의 관계: 손님과 점원] ◆ 손님 A가 주문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점원 B는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말하고 있다.</p> <p>A: 여기요. 주문할게요. B: 손님, 이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요.</p>
<p>상황 4</p>	<p>[A와 B의 관계: 선배와 후배] ◆ 선배 A가 후배 B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후배 B는 미안해하며 거절하고 있다.</p> <p>A: 다해야, 우리 이 전시회 같이 가지 않을래? B: 아, 선배, 저는 사실 미술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죄송해요.</p>
<p>상황 5</p>	<p>[A와 B의 관계: 교수님과 학생] ◆ 교수님 A가 학생 B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B는 죄송해하며 거절하고 있다.</p> <p>A: 그 프로젝트 좀 도와줄 수 있니? B: 교수님,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p>
<p>상황 6</p>	<p>[A와 B의 관계: 친구] ◆ 친구 A가 친구 B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B는 미안해하며 거절하고 있다.</p> <p>A: 은수야, 내가 급해서 그런데 혹시 50만원만 좀 빌려 줄 수 있니? B: 아, 미안해서 어쩌지. 며칠 전에 등록금을 다 내버렸거든.</p>
<p>상황 7</p>	<p>[A와 B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 ◆ 선생님 A가 학생 B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B는 죄송해하며 거절하고 있다.</p> <p>A: 내가 오늘 펜을 안 가져왔는데 펜 좀 빌려줄래? B: 선생님, 저도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p>

3.3 자료 수집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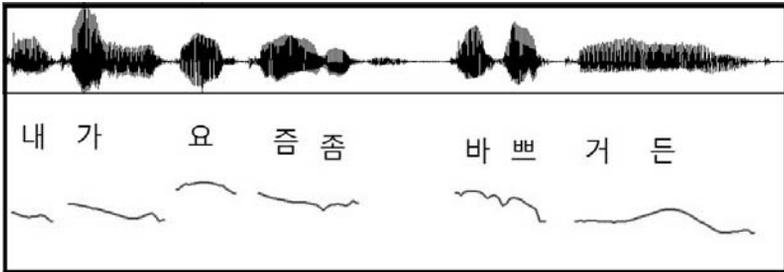
총 7가지 상황의 짧은 역할극으로 구성된 실험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제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도록 사전 연습 시간을 준 후 조용한 공간에서 녹음을 진행하였다. 녹음된 음성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 즉, ‘-는데’와 ‘-거든’이 포함된 문장을 잘라 인도우용 Praat(version 6.0.19)에 넣은 후 ‘-는데’와 ‘-거든’에 얹히는 문말 억양의 음높이 곡선(pitch contour)을 집단 간에 비교 분석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praat에 출력된 음높이 곡선을 참고하여 두 집단의 발화 마지막 음절에 실현된 억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실험 문장 안에서 ‘-거든’에 얹힌 억양은 두 집단 간에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였다.



<그림 1> 중국어권 학습자가 발화한 “내가 요즘 좀 바쁘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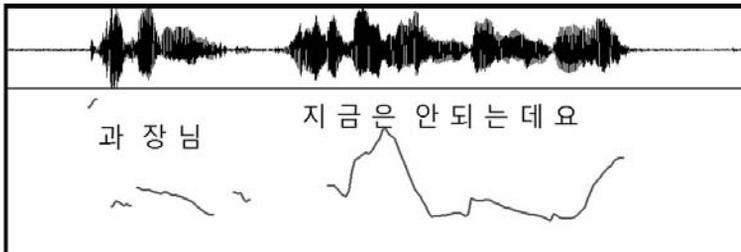
<그림 2> 한국인이 발화한 “내가 요즘 좀 바쁘거든.”

위의 <그림 1>과 <그림 2>의 종결어미 ‘-거든’에서 실현되는 억양의 음높이 곡선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억양 음높이(pitch)는 하강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인의 억양 음높이는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황1’에서 B는 미안한 마음으로 친구 A에게 공손히 거절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태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90% 이상이 하강조(L)의 억양을 선택했다. 그러나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경우는 60%정도가 <그림 1>과 같은 상승조(H)의 문말 억양을 보였고 하강조(L)는 20% 미만에 그쳤다. 조민하(2011b)는 발화 말 연결어미가 거절의 화용적 기능을 수행할 때 L%의 경계성조를 갖게 된다고 했으며, 조민하(2014)는 공손표현에 사용된 연결어미의 경계 성조 유형을 연령별로 살펴 보았는데 20대와 30대의 경우 미정성이나 암시를 나타내는 ‘M:’와 ‘L:’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아무리 고급 학습자라고 해도 주로 상승조의 문말 억양을 실현하는 것을 볼 때 부담줄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발화에서 그 의도에 맞는 문말 억양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화자의 의도와 태도를 전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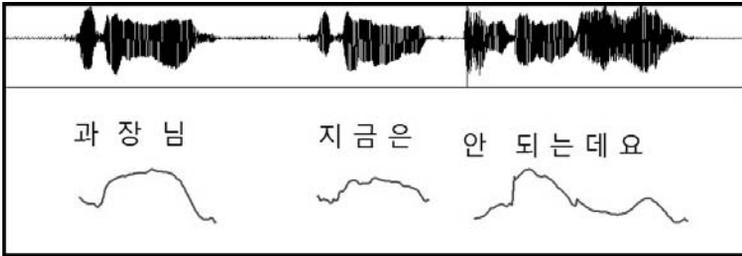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음절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이 발화한 문장 말의 ‘-거든’의 발화 길이가 중국어권 학습

자가 발화한 것에 비해 길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발화의 친절성과 관계가 있다. 윤은경·김슬기(2011)는 문말 ‘-요’가 포함된 문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친절함의 표현 정도가 실제로 음성적 길이와 관련이 있음을 지각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문말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과 발화가 불친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고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한국인 모어 화자집단에서는 공손하게 발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발화할 때 마지막 음절을 장음화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중국어권 학습자 집단에서는 문말 음절의 장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문말의 종결어미를 매우 짧게 발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황 1에서 친구 B의 ‘내가 요즘 좀 바쁘거든(H)’을 들은 친구 A는 친구 B가 불친절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짜증을 내고 있다고도 여길 수 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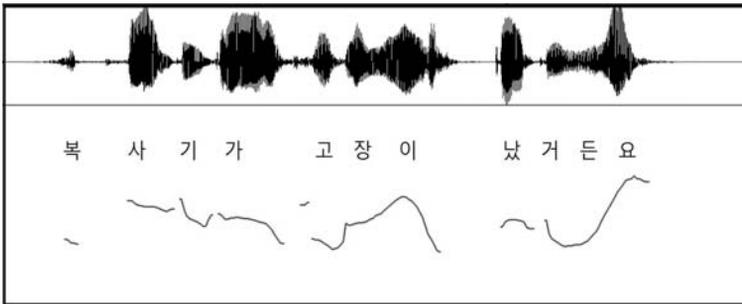
‘상황 2’에서의 ‘-는데’와 ‘-거든’에 얽히는 억양 역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아래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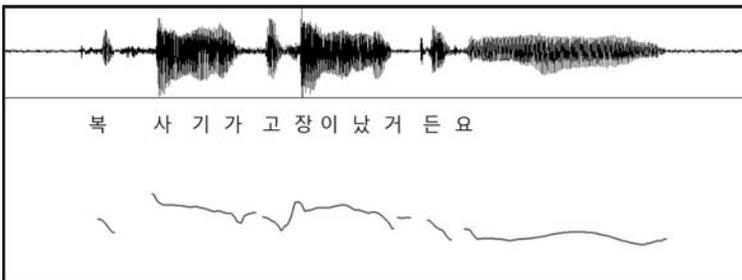
<그림 3> 중국어권 학습자가 발화한 “과장님, 지금은 안 되는데요.”



<그림 4> 한국인이 발화한 “과장님, 지금은 안 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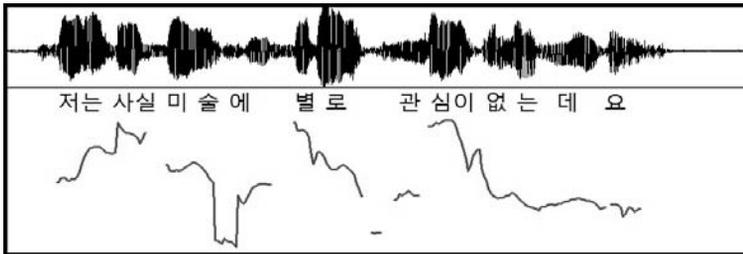
<그림 5> 중국어권 학습자가 발화한 “복사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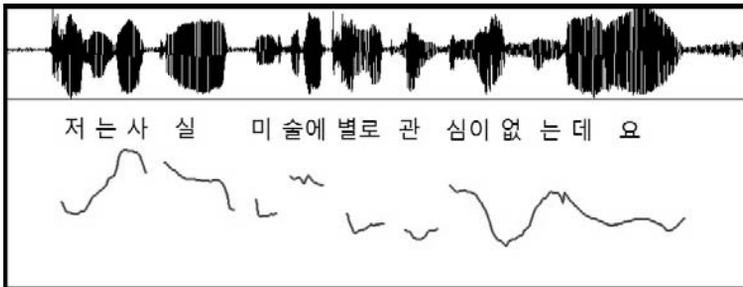
<그림 6> 한국인이 발화한 “복사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위의 <그림 3>과 <그림 5>에서도 중국어권 학습자가 발화한 종결어미 ‘-는데요’와 ‘-거든요’에 실현된 억양은 역시 상승조(H)를 보이는 반면,

<그림 4>와 <그림 6>의 한국인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문말 억양은 하강조(L)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상황 2’에서의 화용적 실패는 ‘상황 1’에서보다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상황 1’에서 두 화자의 관계는 친구사이였지만 ‘상황 2’는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직장 상사가 부하로부터 기대하는 공손함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이 상황에서의 억양 오류로 인한 화용적 실패는 생각보다 큰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다음은 네 번째 상황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7> 중국어권 학습자가 발화한 “저는 사실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그림 8> 한국인이 발화한 “저는 사실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위의 <그림 7>과 <그림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양상은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발화한 ‘-는데’에서의 억양이 한국인들의 억양과 비

슷한 하강조의 곡선이 나타난 것이다. ‘-거든’의 경우, 60% 정도의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상승조의 억양을 실현한 데 반해 ‘-는데’에서의 문말 억양은 한국인들의 억양과 비슷한 하강조가 50% 이상 관찰되었고 상승조는 20% 미만 관찰되었다. 그러나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권 학습자가 발화한 ‘-는데’에서의 하강조 억양은 <그림 3>에서의 ‘-는데’의 문말 억양과 분명히 다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중국어의 문장 억양은 문장 끝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높은 하강조의 억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어 간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는데’위에 얹힌 하강조의 억양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어권 학습자의 60%가 ‘-거든’의 억양을 대부분 고조(H)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분석이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는데’에 비해 ‘-거든’을 사용하여 발화할 때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화용적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바이다.

한편, 같은 하강조의 억양을 보인다고 해도 <그림 7>의 중국어권 학습자의 억양과 <그림 8>의 한국인의 억양을 비교해 보면 음높이 곡선의 기울기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하강조는 높은 기울기를 가지며 pitch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하강조의 억양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의 문말 억양은 LHL%의 음높이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조민하(2014)는 연령에 따른 억양의 공손전략에 대해 연구했는데 10대에서 20대로 가면서 나타나는 차이는 간접성과 관련된 ‘M:/L:’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고 20대에서 30대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LHL’의 증가가 눈에 띄게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인은 청자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발화를 할 때 문말 억양에 특정한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때 ‘L:/ LHL:’의 억양을 실현하며,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이와는 다른 양상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고는 담화상황에서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정한 종결어미들에 대해 그에 맞는 적절한 억양을 한국어 학습자들이 잘 실현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억양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 25명을 대상으로 거절의 상황에서 종결어미 ‘-는데’와 ‘-거든’을 부담줄이기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문말 억양이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중국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 25명이 발화하는 문말 억양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은 청자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먼저 특정한 종결어미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그 종결어미에 얹히는 문말 억양 역시 특정한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때 ‘L:/ LHL:’의 억양을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고급 학습자라 하더라도 모어 화자의 억양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억양을 실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담을 증대시켜 의사소통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큰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한국인 집단의 경우 부담줄이기의 목적을 가지고 발화하는 문장 끝에 얹히는 문말 억양은 음높이의 곡선이 완만하게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문말의 음절에서 장음화되는 현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문말 억양을 대부분 상승조(H)의 억양으로 발화할 뿐만 아니라 하강조(L)로 발화하더라도 기울기가 가파르고 문말의 발화 길이가 짧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청자에게 불손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즉, 부담줄이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발화가 아닌 것이다.

셋째,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종결어미 ‘-는데’와 ‘-거든’에서 실현된 문말 억양에 서로 차이를 보였다. ‘-거든’의 경우 상승조(H)의 억양이 60%, 하강조(L)는 20%를 보인 반면 ‘-는데’는 하강조(L)의 억양이 50%, 상승조

(H)는 20% 정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가 ‘-는데’를 사용하여 발화하는 경우 ‘-거든’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억양으로 인한 화용적 실패를 비교적 적게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어권 학습자가 발화한 ‘-는데’에 얽힌 하강조 억양과 모어 화자의 하강조 억양 사이에는 기울기의 모습에 차이가 있었다. 모어 화자가 발화한 ‘-는데’의 문말 억양에서는 주로 완만한 곡선의 ‘LHL:’이 나타났고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는 주로 높은 기울기로 급하게 떨어지는 하강조의 문말 억양을 보였다. 따라서 하강조를 사용함으로써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의도에는 부합하지 않는 억양이라 할 수 있겠다.

완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 안에서 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적절한 억양의 사용이다. 조민하(2014)에서도 공손표현 전략은 언어 요소인 어미 형태보다 오히려 비언어 요소인 억양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억양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부담을 증대시켜 오해나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억양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아무리 고급 학습자라 할지라도 부담줄이기의 목적에 맞는 억양을 발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억양을 발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차후에는 학습자들의 억양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반응과 수용성까지 살펴보며 보다 더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권성미(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양상 연구: 평서문의 문말에 나타나는 친절성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7권 1호, 한국현대언어학회,

1-22쪽.

- 김선희(1991). “여성어의 한 유형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 논문집 19, 목원대학교, 111-127쪽.
- 김선희·이석규(1992). “남성어·여성어에 관한 연구”, 어문학연구 2-1, 35-74쪽.
- 김용석(1981). “연결어미 ‘-는데’에 대하여”, 배달말 6권, 배달말학회.
- 김중섭·김정숙·이혜영·김선정·이정희(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최종보고서”, 국립국어원.
- 송윤경·김윤신·이동은(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과 억양 연구”, 언어학 62, 145-171쪽.
- 안병섭(2008). “국어 운율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의정(2006). “국어사전에서의 구어 어휘 선정과 기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은미(2004). “한국인과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화행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은경·김슬기(2011). “보조사 ‘요’의 음장 변화에 따른 청자의 지각 차이 비교”, 말소리와 음성과학 3권, 55-62쪽.
- 이은경(1999). “구어체 텍스트에서의 한국어 연결 어미의 기능”, 국어학 34권, 국어학회.
- 이종철(2002). “어말어미 ‘-거든’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 108호, 한국어교육학회, 271-290쪽.
- 이창덕(1994). “‘-는데’의 기능과 용법”, 텍스트 언어학 2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혜영(1989). “‘-거든’의 부사절 형성과 문종결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영(2009). “외국인의 한국어 거절 화행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 연구”, 한국어 교육 2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3-228쪽.
- 이혜영(2015). “한국어 화용 교육에서의 명시적 교수 가능성과 교실 적용”, 한국어 교육 26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7-266쪽.
- 정명숙(2002). “현대 국어 말소리의 통시적 변화: 1950년대 이후 방송 자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연희(2001). “한국어 연결어미의 문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민하(2011a). “‘-는데’의 종결기능과 억양의 역할”, 우리어문연구 40권, 우리어문학회, 225-254쪽.
- 조민하(2011b). “연결어미의 종결기능과 억양의 역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민하(2014a). “종결어미 ‘-거든’의 화용전략과 억양의 기능”, 한국어학 65권, 한국어학회, 237-262쪽.

20 이중언어학 제64호(2016)

- 조민하(2014b). “연령에 따른 억양의 공손전략”, 한국어 의미학 45권, 한국어의미학회, 99-127쪽.
- 채영희(1998). “담화에 쓰이는 ‘-거든’의 화용적 기능”, 한국어 의미학 3권, 한국어의미학회, 159-177쪽.
- 황선영(2014). “핵억양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에 대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인식 연구”, <화법연구> 25권, 한국화법학회, 251-272쪽.

박지연(Park Jiyeon)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전화번호: 02-3277-2106

전자우편: 0917jyp@naver.com

접수일자: 2016년 7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9월 13일

게재확정: 2016년 9월 19일